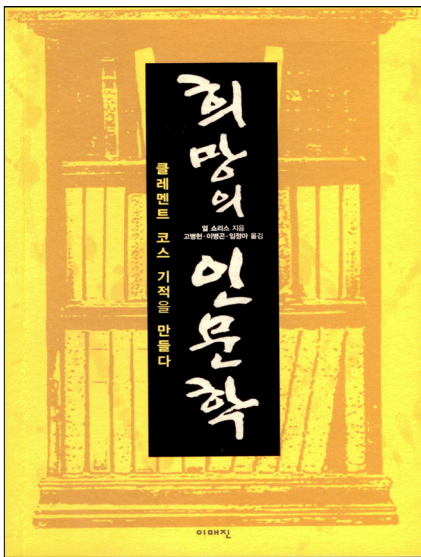

클레멘트 코스 기적을 만들다
희망의 인문학



- 지 은 이 : 얼 쇼리스
- 옮긴 이 : 고병헌·이병곤·임정아
- 발행연도 : 2006년
- 출 판 사 : 이매진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노숙인을 위한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학 강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원 제목이 *Riches for the Poor* 인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 나라 6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곤

층을 위한 인문학, 클레멘트 코스를 시작한 당사자인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쓴 책이다. 최고 수준의 교수진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뉴욕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얼 쇼리스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창의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대부분 훈련에 초점이 주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난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어 저자는 책의 10장에 이르기까지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역사적 고찰, 빈곤에 대한 정의를 이론적으로 때로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통찰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얼 쇼리스는 클레멘트 코스를 시작하게 된 가난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발상이 기존의 상식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근거도 없는 생똥맞은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얼 쇼리스는 무력(force)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무력에 둘러싸인 빈민이란 관점에서 빈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무력이란 한 사람 또는 집단이 타인을 강제하는 상황으로, 대부분 무력은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형태가 지속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력은 무력 행사의 대상자에게 그들 삶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창피를 줌으로써 괴로움과 고통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얼 쇼리스는 빈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물여섯 개의 무력(타인의 시선, 소외, 가정폭력, 굶주림, 질병, 낙서, 공공주택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들은 빈민이라는 전체 집단, 또는 가족 단위로 포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사람씩 포위해 들어오면서, 빈민들을 무기력한 개인생활로 몰아간다고 본다. 이를 저자는 포위망 안에 걸린 동물이나 인간이 자신이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절망에 빠져 외로워지고, 격노하거나 자포자기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하고, 탈출의 희망을 잃고 운명 앞에 굴복한다고 비유하고 있다. 오직 영웅만이 죽지 않으나, 그런 영웅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책의 11장부터는 저자가 가난한 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 즉 클레멘트 코스를 생각하게 된 계기와 코스를 실제 개설하는 과정,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얼 쇼리스는 19세에 감옥으로 들어온 한 여성재소자로부터 클레멘트 코스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한 것 같나요”라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내 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애들을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에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곳에서 시내 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은 더는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의 해결 실마리를 정치적 삶에서 찾는 저자는 ‘시내 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공적 세계에 참여하는 정치적 삶으로 포착하였고, 가난한 이들이 공적 세계에 참여하여 정치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즉 ‘시내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이란 성찰적 사고능력이며, 인문학은 성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 원천으로 줄곧 기능해왔고, 정치적 삶에 입문하는 입구라는 인식에 저자는 도달하였다.

책의 12장부터 17장까지는 이러한 인식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인문학 교육강좌를 어떻게 창설하고, 확대해 갔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만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가고 있

다. 클레멘트 코스의 과목별 강의요목까지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책을 통해 클레멘트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가지게 되는 느낌은 첫째, 미국의 대학교육과 교수진, 지식인의 저력이 대단 하구나 하는 부러움과, 둘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든 우리 대학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문학 위기는 우리 사회전체가 성찰적 사고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또, 저자가 인문학에 기대하고 있는 위력을 믿는다면 인문학 위기론이 대두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다.

신경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소 개

한국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8장 배제된 시민의식	14장 바드대학 클레멘트 코스
1장 록펠로보다 더 부유하게	9장 문화를 넘어서	15장 교육과정
2장 빈곤의 게임: 정의	10장 정치적 삶의 확립	16장 응용과 자기비판
3장 서로를 위해 태어나다	11장 감옥에서 클레멘트 코스의 영감을 얻다	17장 다른 나라, 다른 문화
4장 빈곤의 황금시대	12장 급진적 인문학	18장 결론 : 위험한 추론 오킨이의 말
5장 무력의 포위	13장 클레멘트 실험이 시작되다	찾아보기
6장 무력의 반작용		
7장 노동에 대한 그릇된 생각		